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6월 4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간소하게 진행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이행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정순(☎540-3801)
담당자 김근화(☎540-3804)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을 위로하는 추념식을 6일 보은읍 죽전리 남산 충혼탑에서 엄숙하게 진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상혁 군수를 비롯해 구상회 군의회 의장, 원갑희 도의원, 이재선 보은군보훈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관내 기관단체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정상혁 군수는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호국영령에 존경과 감사라는 정신적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추념식에 앞서 보은읍 학림리에 있는 보은군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을 방문해 호국 영령을 위한 헌화를 분향했다.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고추 총채벌레 방제당부

- 총채벌레 및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증가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김대현(☏540-5771)
담당자 송진현(☏540-5775)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최근 총채벌레의 밀도가 급증하고 있어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일명 칼라병의 출현시기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채벌레 방제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칼라병이라고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옮기는 매개충으로 꽃노랑 총채벌레가 주요 매개충이다.

총채벌레는 1차적으로 고추의 새순과 잎, 과실표면에 해를 가해 정상적인 잎의 출현을 막고 기형과를 유발하며 바이러스를 매개해 작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전염력이 강하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식물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총채벌레 방제와 포장 주변 환경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채벌레 방제법은 총채벌레가 주로 꽃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 꽃이 열려있는 시기에 꽃 안으로 약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3종의 적용약제로 4~7일 간격 번갈아 사용해 내성발현을 막는 것이 좋다.

김대현 소득작물팀장은 “칼라병이라고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TSWV)의 발생시기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찰과 함께 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 보은군 삼승장학회, 창립총회 개최하고 정식 출범

자료문의 삼승면 총무팀 정기홍 (☏540-4182)

보은군 삼승장학회(회장 이태희)는 지난 3일 삼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작년 9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90여명의 후원의 손길 속에 기금 7000만원을 모금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그 동안 삼승장학회 설립을 추진해온 강병우 준비위원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장학회 설립을 작년 7월 김인식 면장님이 부임하신 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며 “장학회 운영을 통해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는 학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신임 이태희 장학회장은 “지역의 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삼승장학회가 큰 역할을 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희망이며 밑거름이 돼 발전의 디딤돌이 됐으면한다” 고 말했다.

김인식 면장은 “이번 삼승장학회 설립이 기폭제가 되어 주민, 출향인은 물론 삼승면에 있는 산업단지의 기업체들 모두 인재양성을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